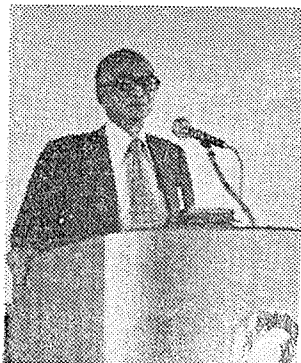


# 統一, 平和, 繁榮을 위한 科學技術人

## 維新理念의 生活化

### 科總 名譽會長 주요한 박사



—방위산업 영화가 상영된 직후—

지금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옛말에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쏠리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새마을 정신」·「維新精神」을 生活化 하자고 하는 오늘의 모임인 줄 압니다. 다만 문제는 귀로 듣고 책에서 읽고도 實踐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朱耀翰 博士〉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實施를 하자는 겁니다. 새마을 정신·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여러 各界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봉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청 네거리에는 아직도 담배꽂초가 너절합니다.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택시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문을 열고 가래침을 거리에 뱉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부터 고치는 것이 새마을 精神을 實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科學을 研究하는 사람이나 技術者들은 나는 科學者니까 精神運動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나는 自然法則에 따라 研究하지 새마을 정신·새마을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말할지 모르나 그런 태도는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科學을 무엇때문에 하느냐? 내가 有名한 發明家가 돼서 世界에 이름을 떨치고 하는 거냐. 요는 재미가 있으니까 趣味로 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科學者는 내가 科學을 함으로써 우리가 統一을 完遂하고 우리 民族이 發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使命感을 갖고 科學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科學者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늘 靑年들에게 말을 하지만 使命感을 가진 靑年이 돼라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 이것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넓게 말하면 世界 人類平和와 進歩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과학자가 많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과학을 무엇때문에 연구하고 技術을 무엇때문에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民族이 잘 살기위해서 또는 우리 南北이 다시 한나라로 統一 돼서 의중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科學을 하고 研究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마을 精神」의 實踐이요 「維新理念」의 實踐이라고 생각합니다.